

패션 : 포스트모던적 접근

최 선 형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부교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소비자 문화 구조를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철학적 문화적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Borgmann 1992; Vattimo, 1992). 포스트모더니즘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을 대상으로 비연속성, 다원성, 혼돈, 불안정, 독설 등의 과정으로 현 사회를 주장한다고 볼 때, 일시성과 변화를 특성으로 하는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부합되는 요소가 많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를 지배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패션의 속성과 패션의 전과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소비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개념은 Hirshman과 Holbrook(1992)이 도입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다. 이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탈 중심주의와 함께 상대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여 상대적인 위치의 것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주의, 공동체주의 관계로 제시된다.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으로는 파편화, 탈중심화, 병치 현상을 제시하였다(Firat 와 Venkatesh, 1993).

패션의 속성은 Simmel(1904)과 Davis(1992)가 제시하는 대립적인 요소들간의 긴장으로, 전과 이론은 모더니즘 시기를 나타내는 Veblen(1989)의 상징적 소비, Simmel(1904)의 하향전과설, Blumer(1968)의 집합선택이론과 포스트모던 시기를 설명하는 Lipovestky(1987)의 열린패션과, Davis(1992)의 절충주의, Kaiser 등(1995)의 양면가치와 변화 모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패션현상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 문화에서의 패션은 사회진보나 계급을 나타내는 문화 자체이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의 패션은 문화의 중심적 특성으로 개인의 취향을 나타낸다고 볼 때, 패션이 모던문화에서는 사회변화를 나타내는 객체적 입장이었으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주체적인 역할로 문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패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중심개념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패션의 속성은 포스트모던적 조건 중 분열화와 병치현상과 관련되었다. 즉 패션의 형성하는 대립적인 요소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일반화와 차별화, 유사성과 개성, 일관성과 변화라고 볼 때, 패션의 속성은 대립적인 요소들간의 불안전성과 긴장이 발생하는 모순적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이 확산되는 과정은 포스트모던적 조건 중 탈중심화와 병치현상과 관련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패션의 확산 과정은 패션의 기준과 기호를 중심문화에 두는 패션시스템 모델과 패션의 기준과 기호를 개인이나 소집단의 패션에 두는 비패션 시스템 모델 즉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주의에 의해 절충되어 존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